

콩고민주공 - 르완다 평화협정 체결

□ 4년간 계속된 아프리카판 세계대전의 종식 계기 마련

- 2002년 7월 30일, 남아공의 행정 수도인 프레토리아에서 콩고민주공화국의 조셉 카빌라 대통령과 르완다의 폴 카가메 대통령은 새로이 출범한 아프리카 연합(AU)의장인 남아공의 음베키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 협정에 서명함.
- 이에 따라, 르완다는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에 파견한 르완다군 3만명을 90일 안에 본국으로 철수하고, 콩고민주공화국은 1994년 르완다 대학살을 주도한 후 르완다 정부군에 쫓겨 콩고민주공화국내로 피신한 르완다의 후투족 반군을 90일내에 체포, 무장 해제후 르완다로 송환하기로 합의함.
- 남아공과 유엔은 평화군을 파견하여 양측의 휴전 협정 이행을 감시하고 120일 이내에 평화협정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검증기로 하였음.

□ 콩고내전은 종족 분쟁과 풍부한 지하자원 때문에 국제전으로 확대됨

- 콩고민주공화국(옛 국가명:자이레, 레오폴드빌 콩고)은 30년간 독재 권력을 유지해온 모부투대통령이 실각하자 정국은 극도로 혼란해짐.
- 동국은 한반도의 10배인 면적과 450여 종족(인구 5천3백만 명)으로 구성된 국가로, 100만 명의 주민을 학살한 르완다의 후투족 반군이 콩고민주공화국내의 후투족 거주지로 이동한 후, 투치족 중심의 르완다 정부 전복을 위한 배후기지로 활용하고 있음.

- 그러나 콩고민주공화국의 정부군은 콩고반군 때문에 국경지역의 군사적 통제력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자국 반군소탕을 명분으로 내세운 르완다군이 1998년부터 콩고에 주둔였으며, 같은 이유를 내세워 우간다와 브룬디가 콩고 북동부로 출병하여 콩고 반군을 지원함.
- 콩고 정부는 짐바브웨, 잠비아, 나미비아, 앙골라, 차드 정부에 다이아몬드 광산과 콩고강 하류의 석유 채굴권을 양도하며 지원을 요청하여 인접한 8개국의 국제전으로 비화됨.

□ 아프리카연합 출범후 분쟁해결의 첫 사례

- 남아공이 콩고 분쟁 해결에 적극 개입하는 이유는 중부 아프리카의 분쟁이 남부까지 확대되는 사태를 방지하고, 새로이 출범한 아프리카 연합의 초대 의장국으로써 위상을 강화하고자 적극 노력하였기 때문임.
- 콩고와 르완다가 가입한 아프리카 연합은 아프리카 평화군을 파견하여 지역 분쟁 해결에 무력 개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한 설득이 주효하였기 때문임.

□ 평화 협정의 준수 여부는 평화군의 역할에 좌우될 전망

- 그러나 국토의 1/3을 장악한 콩고민주연합(RCD) 등 반군들이 이번 협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콩고 정부군이 콩고내의 르완다 후투족 반군을 체포하여 무장 해제시킬 능력과 의사가 부족한 점이 문제점으로 부상.
- 따라서 협정 이행을 지원하고 감독할 평화군의 역할에 따라 협정의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책임연구원 : 한명환(3779-6651)
E-Mail:hhmyung@koreaexim.go.kr